

위기의 시대에 가치창조의 빛을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창가학회) 회장

2021년 1월 26일

코로나19 이겨내고 희망찬 사회 함께 건설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 해마다 악화되기만 하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덮쳐 사회적, 경제적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위기라는 말은 위기가 거듭 되기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에서 보면 인류는 여러 위기를 맞았지만, 전 세계가 이만큼 일제히 타격을 입고 모든 나라 사람이 생명과 존엄 그리고 생활이 급격한 위협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 빠진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1년여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전 세계에서 99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212만명(1월 25일 기준)에 달해 그 수는 지난 20년간 대규모 자연재해로 희생된 인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을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사실은 감염방지 때문에 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상실감이 곳곳에 퍼지는 데다 경제활동이 끊겨 도산이나 실업이 급증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갑자기 곤궁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증유의 위기에 따른 암운이 전 세계에 드리워지는 와중에도 '평화와 인도주의의 지구사회'를 구축하려는 도전이 모두 멈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 22일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와 국제노동기구(ILO)의 모든 가맹국 187개국이 '아동노동착취금지협정'¹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아프리카에서 야생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등 획기적인 진보를

¹ 아동노동착취금지협정

1999년 6월에 채택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최악의 형태인 아동노동 금지 및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엔이 2030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이자 ‘넘기 어려운 벽을 타파하는 인간의 무한한 창조력’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유엔의 날(10월 24일)에 발효 요건을 충족한 핵무기금지조약은 유엔 창설 이듬해(1946년)에 총회 결의안 제1호로 제출된 이후 해결 과제로 남은 핵무기 폐기가 마침내 조약으로서 명확한 절차를 밟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동서냉전 아래 핵개발경쟁이 격화한 1957년 9월에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참가학회 제2대 회장이 발표한 ‘원수폭금지선언’을 원점으로,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확립하고자 우리 SGI도 핵무기 폐기국제운동(ICAN) 등의 단체와 함께 행동했기에 이 조약의 발효가 참으로 기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 세계가 심각한 쇼크 상태에 빠진 지금,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보고, 더불어 ‘평화와 인도주의의 지구사회’를 건설하는 도전을 21세기의 흐름으로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의 일상

첫째 기둥으로, 계속되는 ‘위기의 일상화’로 고립된 채 홀로 곤란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날마다 뉴스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종식을 전망할 수는 없지만, 연일 갱신되는 숫자의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해 지금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팬데믹 선언 일주일 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코로나19 위기에 관해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통계 수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일로 실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생명 하나하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본디 이런 시선은 거대한 재해가 일어날 때 결코 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행동에 관한 협정’이다. 노예노동과 강제노동 등의 금지와 철폐를 요구하고, 무력분쟁과 약물거래 등의 부정한 활동과 위험유해 노동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엔이 올해를 ‘국제 아동노동 철폐의 해’로 지정하기 앞서 지난해 8월, 국제노동기구(ILO)의 모든 가맹국이 비준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처럼 세계 모든 나라가 처한 위협이 장기간 이어져 ‘위기의 일상화’라고 할 현상이 넓혀지는 상황에서 그 긴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SGI도 감염방지에 철저히 힘쓸 뿐 아니라, 날마다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종식을 강하게 염원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거듭 추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창립한 브라질SGI의 ‘소카연구소 아마존환경연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식수하는 ‘라이프 메모리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식수를 통해, 지금까지 브라질 대지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추억하며 생명의 무게를 되새겨 그 기억을 남기고, 아마존의 삼림재생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함께 애도하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일은 인간사회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감염이 계속 확산하여 많은 사람이 고인을 추모할 곳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지금, 통계 숫자에 담긴 ‘생명’의 무게를 잊지 않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통감합니다.

사회 표면에 매몰되기 쉬운 현상

이와 더불어 ‘위기의 일상화’에 따라 각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요구되어 사회의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기울면, 사회취약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국은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의료체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새롭게 부상한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을 맞아 사회 전체가 취할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재택근무 권장, 온라인수업 도입 등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집에 머물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감염의 급격한 확산을 막고 의료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그 의의가 큼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감염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개선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위험대책의 영역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혁신적 행동은 우선 소중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직결됩니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반복은 동시에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낯선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배려’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격차와 차별로 고통을 받아온 취약계층이나 ‘사

회적 관계망'의 도움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측면에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도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변의 지원이 평소보다 제한된다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원해주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고 '존엄한 삶'을 구축하는 토대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또 일과 교육은 물론 구매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온라인 이용에 서투른 사람들이 뒤처지는 상황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게다가 외출자제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피해자가 행정기관이나 지원단체에 연락해 상담할 길마저 막혀 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감염방지 대책에 힘쓰고 사회에 넓혀진 '수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배려'를 기반으로 하면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일상화되어 사회 표면에 매몰되기 쉬운 '여러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존재에 주목해, 그들이 겪는 괴로움과 삶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 사회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먼저 없앤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나타난 문제

WHO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소셜 디스턴스(Social distance)'가 아닌 물리적, 신체적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피지컬 디스턴스(Physical distanc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셜 디스턴스'라는 표현은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오해를 넓혀 사회적 고립이나 분리를 고착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 전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터널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도, 같은 사회를 살아간다는 '방향 감각'만큼은 결코 잃으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기한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2020년) 7월, ‘코로나19에 맞서자’라는 제목으로 유엔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사무총장은 ‘뉴노멀’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현 상황을 이 한마디로 규정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한 뒤 ‘엡노멀(Abnormal, 비정상적 사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제기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강요당한 상태가 긴급피난적이라 어쩔 수 없이 비상상황에 내몰렸다고 해도 이는 본래부터 인간에게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계속 인식해야 한다는 경종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무총장은 다른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뉴노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세계가 ‘노멀’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불평등의 확대, 성차별의 만연, 젊은이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 인상되지 않는 임금, 악화일로의 기후변화 등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것도 ‘노멀’이 아닙니다.”

모든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세계의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되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전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은 모든 나라에 미치는 위기지만, 영향력의 정도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감염방지 대책으로 권장하는 ‘비누로 손 씻기’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40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이 30억명이나 됩니다.

또 분쟁과 박해로 고향을 떠난 난민 수가 세계에서 8000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난민캠프 등에서 밀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리적, 신체적 거리두기 확보가 어렵고, 감염자가 나오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위험을 떠안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각 요소가 떠안은 위협의 관계성이나 문제의 소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와는 별개로, 위협에 노출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호소하는 바입니다.

불법의 원류에 강하게 맥동하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정신

‘독화살의 비유’가 제기하는 관점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불법(佛法)의 관점이 있습니다. 석존이 설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한 남자가 독화살에 맞았다. 그때 ‘이 화살을 쏜 사람의 성별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나 ‘활과 화살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데에 정신을 빼앗겨 ‘그것을 알기 전까지 화살을 뺄 수 없다’고 계속 고집해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독화살이 박힌 채 끝내 목숨을 잃게 된다.”

이 비유는 인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보다 관념적인 논의에 관심이 가기 쉬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석존이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주목해 석존의 목적은 체계적인 가르침을 설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고 통찰한 분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 박사입니다. 박사가 석존의 가르침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라고 평가했듯이, 석존이 무엇보다 마음을 쓴 일은 ‘독화살의 제거’ 즉 한사람 한사람이 처한 괴로움의 근원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불법의 출발점에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석존이 그때그때 설한 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석존이 설한 가르침의 진수인 법화경(法華經)을 기반으로 13세기 일본에서 불법을 넓힌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석존의 가르침이 끼친 힘을 “등불에 기름을 더하고 노인에게 지팡이를 주는 것과 같이”(어서 576쪽)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존은 어떤 초인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에 본디 갖추어진 힘을 꺼내는 지지대와 같은 말을 하는 데에 전념했습니다.

당시 재해나 기근뿐 아니라 역병이 만연하는 일본에서 <입정안국론>을 저술해 ‘민중의 고뇌와 비탄을 없애겠다’는 일점에 서서 행동의 중요성을 주장한 대성인 불법에도 그 정신은 강하게 맥동합니다.

거듭되는 재해로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대성인은 그 참상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삼재(三災) 칠난(七難) 수십년 일어나서 백성이 반으로 줄고 나머지는 혹은 부모 혹은 형제 혹은 처자와 헤어져서, 한탄하는 소리가 가을의 벌레와 다름이 없으며, 집집마다 흩어져 없어짐이 겨울의 초목이 눈을 맞는 것과 흡사하니라.”(어서 1409쪽)

이러한 시대에 대성인은 점점 혼미해지는 사회에 희망을 밝히기 위해, 재해나 고난에 뒤덮인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셨습니다.

신념에 찬 행동을 관철하다 유배 등의 박해를 몇번이나 당한 대성인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용기를 전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자주 편지를 쓰셨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을 여인 여성문학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는 아픈 아들도 있고 귀여운 딸도 있다. ‘내가 아이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은 늙은 아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가엾게 여길까’ 하고 한탄했을 것이다.”(어서 1253쪽, 취의)

그리고 이어서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어서 1253쪽) 하고 쓰셨습니다.

거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여성문학을 격려하려는 다음과 같은 만감이 담겨 있다고 배견됩니다.

“지금은 냉엄한 ‘겨울’ 추위가 덮친 듯 괴롭겠지요. 그러나 ‘겨울’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곳곳이 살아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의 어린 자식들을 항상 지켜드릴 테니 안심해도 좋습니다”(어서 1254쪽, 취의) 하는 말을 덧붙여, 남편을 떠나 보내고 인생의 시간이 ‘겨울’에서 멈춘 것 같은 여성문학의 가슴에 따뜻한 ‘봄기운’을 전하셨습니다.

이 여성문학에게 보낸 말씀처럼 대성인은 편지에 쓴 한글자 한글자에 자신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읽은 뒤에 그 말은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대성인의 ‘마음’이 문학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종교가 깊어져야 할 사회적 사명

대성인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번 팬데믹이 야기한 혼란으로 많은 사람이 ‘인생이 멈춰버렸다’ ‘갑자기 생활 기반이 막혔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등 견디기 힘든 심정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때에 사회적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사람은 장막이 가려진 세계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다가간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주변과 사회가 자신의 고경을 비춰주는 따뜻한 빛을 받음으로써, 더없이 소중한 인생과 존엄을 되찾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SGI는 대성인 정신을 이어받아 ‘고립된 채 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신념에 입각해 세계 192개국·지역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신념은 제 스승인 도다 제2대 회장이 말씀하신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비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에 응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세계와 국가 그리고 개인이라는 모든 면에서 도다 회장의 눈길은 ‘비참’을

없애는 데에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라 해도, 어떠한 나라가 직면한 어려움이라 해도,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경이라 해도, 인간과 인간을 가로막는 모든 울타리를 넘어 ‘비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한다는 사회적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SGI가 국제적인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자 같은 뜻을 품은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해 여러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 (FBO)와 깊이 연계한 까닭도 바로 이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위협의 연속이고, 앞으로도 잇따라 일어날 위협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심각한 과제가 발생해도, 그 위협과 과제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기 위한 기반을 사회에 구축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로 물리적, 신체적 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처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종교나 FBO가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팬데믹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어, 벗어날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진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을 역경에서 구하는 ‘아리아드네의 실’²은 저마다 생명의 무게를 되새기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절실한지를 발견하는 데서 선명히 떠오르지 않을까요.

각국 연대가 사태를 타개하는 초석으로

대다수의 나라가 동시에 입은 ‘재해’

다음 둘째 기둥으로, 각국이 입장 차이를 넘어 ‘연대하여 위기를 이겨내자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피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² 아리아드네의 실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데 ‘길잡이’가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그리스신화를 연원으로 한다. 크레타섬의 아리아드네 공주가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 미궁에 들어가는 테세우스에게 미궁 입구와 연결된 실을 건네 그 실을 실마리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도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수많은 목숨과 건강의 참혹한 상실’과 ‘경제적, 사회적인 곤궁’을 막기 위한 대응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입이 끊긴 데서 오는 영향까지 더하면 지금껏 인류가 경험한 그 어떤 재해보다 코로나19라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미증유의 위기 양상을 보이는 까닭은 대다수의 나라가 코로나19 위기로 ‘재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수마트라지진(2004년)을 비롯해 파키스탄지진(2005년),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2008년), 중국 쓰촨성대지진(2008년), 아이티지진(2010년) 등 거대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현지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지만 재해 직후 구호활동부터 복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흐름이 확산되었습니다.

10년 전 동일본대지진 때도 많은 나라가 잇따라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일이 재해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북돋워주었는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재해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 놓인 재해지역 사람들에게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이러한 유대의 존재가 바로 마음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대다수의 나라가 동시에 ‘재해’를 입고 있기에 상황은 더욱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항해 중인 각각의 배’에 비유해 본다면 모든 배가 일제히 폭풍우에 휩쓸려 경험한 적 없는 거센 파도에 노출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라는 ‘같은 문제에 놓인 바다’에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휩쓸려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해도(海圖) 없는 항해’에서 나침반이 될 만한 것을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일찍이 저와 대담한 역사가 아널드. J.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미래를 밝히기 위한 유일한 빛은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일찍이 냉전 대립이 격화된 와중에 소아마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개발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양보해 협력한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소아마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불활성화 백신’을 주로 이용했는데 접종법이 주사에 국한된 점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먹는 약인 ‘생백신’ 개발을 미국이 시작했지만 이미 ‘불활성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라 새로운 백신 피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련은 자국의 아이들과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적대관계인 미국과 협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감염자 증가를 우려해 타협을 모색하고, 미국도 소련과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 1959년 이후 소련과 그 주변국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마침내 ‘생백신’을 실용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생백신’으로 일본의 많은 아이를 구한 사건은 제게 선명하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60년, 소아마비가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다시 감염이 확산되어 연일 뉴스에 환자 수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백신 투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거세졌습니다. 그때 캐나다에서 수입한 300만명분보다 소련에서 1000만명분의 ‘생백신’을 받아 유행을 급속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이 협력한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생백신’ 투여가 일본에서도 이뤄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 사이에서 안도의 표정이 퍼진 광경은 6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원

COVAX의 의의

한편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유효한 백신 개발을 비롯해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는 것과 아울러 각국에 백신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지가 큰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WHO 등이 지난해 4월에 설립한 것이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라는 국제적인 시스템입니다.

모든 나라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를 목표로 우선 올해 연말까지 20억회분의 백신을 참여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COVAX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불과 1개월 뒤에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대응이 빠른 것은 국제적인 시스템 없이 백신 개발 경쟁이 진행되면 자금력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에 백신 확보에 심각한 격차가 생기거나 백신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WHO는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총회에서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은 모든 나라에 나눠야 할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COVAX 참여국은 190개국·지역으로 확대되어 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은 모든 주요국의 협력을 얻어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조기에 참여한 일본이 미국이나 러시아 등 미가입국이 COVAX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

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WHO와 제휴해 국제적인 백신 공급의 운영을 맡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세스 버클리 대표는 일본이 지난해 10월에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빠르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귀중한 지원은 안전하고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긴 줄의 뒤쪽에 자리한 저소득국을 뒤쳐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찍이 2000년에 실시한 규슈·오키나와 G8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감염증 대책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처음으로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2년 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설립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일본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기금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 3대 감염증의 위협에서 총 3800만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글로벌 공공재

생각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설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해 ‘얼마만큼의 생명을 함께 구할 것이냐’에 기반을 두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염자 수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제휴보다 자국의 방위를 위한 발상으로 치우칠지도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감염으로부터 지킨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면, 결국 자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저는 WHO가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을 ‘글로벌 공공재’라고 자리매김한 점을 언급했는데, COVAX 계획이 궤도에 오른 뒤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글로벌 공공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연구는 백신 같은 제품이나 인터넷 등 사회 기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나 환경이라는 각국이 협력해 추진하는 정책의 결과로서의 ‘세계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상태 그 자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를 예로 들면, 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상이변이나 해수면의 상승 악화를 억제한다는, 모든 나라에 바람직한 상태가 구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팬데믹을 각국의 연대로 수습하고 나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감염증 위협에도 충분한 회복탄력성(리질리언스)을 갖춘 세계’를 향한 지평이 크게 열려 ‘장래에 걸쳐 모든 나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존재를 헤아리는 마음이 '회복탄력성' 키우는 토양으로

이 회복탄력성을 뒷받침하는 요체를 생각할 때 어느 나라의 배든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등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코로나19로 생명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제일선에서 '등대'처럼 송고한 사명을 짊어지고 헌신적으로 계속 행동한 존재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 분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바칩니다.

전 세계 간호사 8명 중 1명은 출신 국가나 교육을 받은 나라 이외의 장소에서 존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부담으로 여겨 소외시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엔도 시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확실히 각국이 코로나19 위기에 빠졌을 때 많은 인명을 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사람들이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 현장이나 병원 운영 등을 뒷받침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 선언 이후 마스크가 부족해 각국 간 확보 경쟁이 일어났을 때 난민들이 수용지역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일에 관해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몇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케냐에서 지난해 3월에 최초 감염자가 보고되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 때 뉴스를 듣고 행동을 일으킨 사람이 난민캠프의 남성이었습니다.

이웃 나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도피해 난민캠프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그 남성은 '우리 난민도 지원에 의지하는 것만이 아닌 이 위기 속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다른 난민이나 현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UNHCR 직원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또 독일에서도 자신들을 받아준 지역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를 돕고 싶어서 중동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 가족이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도중에 마스크용 고무가 부족해졌을 때는 사정을 안 지역 주민들이 곧장 많은 고무를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난민 가족은 마스크를 만든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살 곳을 찾고, 일자리도 얻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보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기쁩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비록 혼자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다’는 억누를 길 없는 마음.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기에 존재를 서로 헤아리고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려는 행동.

저는 국적이나 처한 상황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사회에 쌓임으로써 ‘회복탄력성’의 토양이 굳건히 다져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마비와 천연두 근절 위한 공동 투쟁

백신 개발은 위기를 타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WHO가 유의하라고 당부하듯이 그것만으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백신 수송 체계를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 접종을 각지에서 실제로 진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향후 감염방지 대책과 함께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을 진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이 ‘연대하여 위기를 이겨내자는 의식’의 공유와 ‘회복탄력성’ 구축을 맡을 사람들의 유대를 넓히는 일입니다.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판데모스(Pandemos)가 어원인듯이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서 감염 확산이 수습되지 않는 한 그 위협은 국적이나 처한 상황의 차이에 관계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국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종래 ‘국가 안전보장’ 같은 방법은 충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냉전시대의 소아마비 백신 개발이 미국과 소련의 협력에서 그 싹이 튼 것처럼 나라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람들이 맞닥뜨린 위협을 함께 제거하겠다는 ‘인간 안전보장’을 위한 접근방식이 중요합니다.

향후 팬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 백신 공급을 포함한 감염 방지책의 중심이 ‘전 세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안전만을 우선하는 목적’으로 기울어지는 풍조가 각국 사이에 강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의 구조는 냉전시대의 핵정책이 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³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³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냉전시대의 핵전략 구상 중 하나로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받은 경우라도 상대 국가에 견디기 힘든 손해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핵보복 능력을 갖추므로써, 공포의 균형을 일으켜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1965년에 맥나마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장했다. 약칭 ‘MAD’는 영어로 ‘광기’라는 의미에서 당시 ‘광기의 전략’으로도 불렸다.

자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핵억제력을 견고히 구축했다고 해도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 공격과 응수가 시작되면 자국민의 안전 확보는커녕 인류 전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결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아마비는 지난해 아프리카에서의 근절 선언을 거쳐 아시아 2개국에서 유행이 멈춘다면 세계 전체에서 근절을 달성할 수 있는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에 앞서 인류가 처음으로 감염증 극복에 성공한 때가 1980년 천연두 근절이었습니다.

그 획기적인 위업을 맞아 제 소중한 우인인 핵전쟁방지국제회의사회(IPPNW)의 공동 창설자 버나드 라운 박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냉전의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시기에도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던 양 진영의 의사들은 협력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 선제공격을 상정하여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던 바로 그때, 미국과 소련의 의사들은 협력하여 천연두를 근절하고자 분투했습니다. 이 단결은 핵무기 반대운동에도 큰 설득력을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이 IPPNW를 모체로 한 ICAN을 포함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와 세계의 피폭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든든한 지지를 얻어 실현되었습니다.

어딘가 위협의 불씨가 남아 있는 한, 지구에서 같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안심과 안전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희생당하지 않고 세계 민중의 생존권이 지켜져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안전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기축이 될 만한 지표를 조약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지난 1월 22일에 발효한 핵무기금지조약입니다.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 박사는 ‘시간의 원근법’이라는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박사는 이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의 원근법에 비춰보면 그때그때의 사건을 올바른 균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앞으로 수세기가 흐른 뒤에 미래의 역사가가 20세기 전반을 되돌아보고, 이 시대의 여러 활동과 경험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경우 과연 현대의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역사가가 21세기 전반을 ‘시간의 원근법’에 비춰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를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와중에 안전보장을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된 사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 국제사회가 더욱 노력하여 COVAX가 지구 규모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 일이 역사에 새겨지기를 저는 깊이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심각한 위기이지만 ‘넘기 어려운 벽을 타파하는 인간의 무한한 창조력’을 결집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연대하여 위기를 이겨내자는 의식’을 시대 흐름으로 만들어, ‘국가 안전보장’ 중심의 비극적 고리를 끊는 인류사의 궤도를 전환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회를 분단하는 차별을 깨고 만인존엄이 빛나는 세계를

감염증을 둘러싼 역사

이어서 셋째 기둥으로,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코로나19를 둘러싼 유언비어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인권문화’의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읽은 문학작품 중 하나로 다니엘 디포의 ‘전염병 연대기’가 있습니다.

17세기 런던을 무대로 한 이 작품에서 페스트의 공포에 사로잡힌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고, 불안을 부추기는 말에 영향을 받아 자아를 잃어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과거 페스트부터 최근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감염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극심한 공포로 인한 분열과 혼란으로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환에 ‘나도 언젠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는 다르게 감염증은 ‘누군가에게서 옮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심해지기 때문에 병원체에 대한 공포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바뀌기 쉽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경계심이 점점 심해져, 감염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이전부터 뿌리깊은 차별과 편견을 당한 사람에게 감염 확산의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에서는 감염증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경향이 있어 염려됩니다.

그 배경에는 감염방지 대책이 계속 바뀌고, 감염 확산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에, 많은 사람이 정보를 찾아 신문 등 기존 매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진위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접하여 ‘정보의 공백’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하여 사회를 선동하려고 하거나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오심을 일으키게 하는 악의에 찬 말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

이러한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가 한없이 퍼져 차별과 편견이 증폭됨으로써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을 해치는 ‘또 다른 팬데믹’이라고도 할 만한 사태를 신조어로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유엔도 강하게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의 만연을 막고자 ‘검증 완료(Verified)’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언론매체와도 연계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유엔이나 과학자 등 전문가가 내용을 검증했다는 ‘검증 완료’ 인증마크를 붙이는 활동입니다.

또 전 세계의 시민에게 ‘정보지킴이’로 참여하기를 호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시민의 손으로 적극 확산하고 공유하여 가족이나 커뮤니티의 안전과 유대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의 확산을 방치한 채, 그 잘못을 주위에 철저히 알리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는 올바른 정보의 정착을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점은 유언비어의 뿌리에 있는 깊은 차별과 편견이 감염증에 대한 공포에 편승해 의심이 의심을 낳는 상태에 빠뜨려 사회의 균열이 깊어지고 누구나 지켜져야 할 존엄과 인권에 ‘단층’을 생기게 합니다.

감염증과 인권을 둘러싼 문제에 관해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 5일 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나중이 아니라 그 활동의 전면과 중심으로 내걸 필요가 있다”고 신속한 유의를 촉구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지난해 9월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뿌리깊은 불평등과 인권 격차가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그 위협을 가속도로 팽창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사회와 그 틈새에 존재하는 이러한 격차를 없애고, 깊이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려는 행동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첼레트 대표가 언급한 ‘뿌리깊은 불평등과 인권 격차’의 구조적 속성은 이러한 ‘깊이 새겨진 상처’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차별의식이 더욱 선명한 형태로 나타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가운데,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말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고통과 좌절감을 토해낼 배출구로서 특정한 사람들을 겨냥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설적인 행동을 만드는 열쇠

사는 지역과 직업의 차이, 인종과 종교의 차이 등 모든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병이고,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오히려 사회가 분열되고 위협이 가속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두고 미국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박사가 사회와 혐오감의 관계를 논한 저서 ‘혐오와 수치심’에서 말한 내용을 들어 차별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박사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경계선을 만들려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만들어 ‘안도감’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얻기 위해 혐오를 불러낸다.”

여기서 누스바움 박사가 말하고자 한 바는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특정 단체일 뿐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는 사고인데, 감염증이 이야기하는 혼란과 차별을 둘러싼 문제에도 그 구도가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박사가 지적하듯이 ‘병원균’이라는 의학적 단어가 혐오감을 나타내는 악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특정 사람들을 얹보거나 억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근원에 있는 ‘우리야말로 가장 올바르고 존귀하다’는 의식은 어떤 사회적 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만은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과 더불어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강해져 관계를 끊음으로써 안도감을 얻으려는 구도가 보입니다.

누스바움 박사는 혐오감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상대나 집단에 대해 ‘공동체 또는 세계의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낙인을 찍는 것’으로 특히 그것이 ‘힘없는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그러한 혐오감이 생기면 위험한 사회적 감정이 된다’고 경종을 울립니다.

또 박사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감정으로 ‘분노’를 중요하게 여겨, 그 기능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에는 건설적인 기능이 있다. 즉 ‘이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면 더 이상 그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분노는 그 자체로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살기 힘들다’는 감정에는 차별 의식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어 사회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공생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도 숨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전보다 더욱 절실히 느낀 사람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자기가 느끼는 ‘살기 힘들다’는 감정을 다른 사람을 얹보는 ‘혐오감’으로 해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살기 힘들다’는 감정을 헤아리면서 사회의 냉엄한 상황을 바꾸고자 ‘건설적인 행동’에 참여

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넓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변혁 촉구하는 인권교육의 힘

법화경에서 설한 생명축발의 드라마

물론 자신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우리가 신봉하는 불법의 인권사상도 그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존의 일화를 든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코살라국 왕과 왕비가 대화를 나누다 각자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는 생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뒤 왕이 석존을 찾아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자 석존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다른 사람도 저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을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음미해야 하고, 그 실감을 자기 삶의 기축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석존은 가르쳤습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불법의 인권사상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감을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승화시켜 자신과 다른 사람,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존이 설한 가르침의 정수인 법화경에도 그야말로 그러한 인간생명을 축발하는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만인에게 ‘가장 존귀한 생명’이 갖추어져 있다는 석존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깊이 실감한 사람이 한사람 또 한사람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깨달아 ‘자타 함께 존엄이 빛나는 세계’를 구축하겠다고 서로 굳게 다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석존은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깊이 뿌리박힌 차별을 당한 여성들을 비롯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가장 존귀한 생명’이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법화경에는 다양한 형태로 차별받고 학대당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서로 존귀한 존재라는 기쁨을 나누는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러한 생명과 생명이 축발하는 드라마를 예로 들어 ‘만인존엄’의 법리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우리 SGI는 법화경에서 설한 ‘만인존엄’ 정신을 바탕으로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유엔이 호소하는 인권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1995년에 시작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현대세계인권’ 전시회를 8개국 40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2005년부터는 유엔의 새로운 체제로 발족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또 2011년에 인권교육의 국제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채택을 많은 단체와 협력하여 후원하고, 그 뒤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협찬을 받아 ‘변혁의 첫걸음인권교육의 힘’ 전시회를 개최하고 ‘인권교육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교육학습 비정부기구(NGO) 작업반’을 대표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제4단계를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점과 관련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행동계획은 인권교육과 청년의 가능성을 크게 넓혀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는 데 어려움은 더 많아졌지만, 인권 실현의 주요 조건인 인권교육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채택한 지 올해로 10주년의 가절을 맞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권교육의 힘으로 구축해야 할 지침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내걸었습니다.

원을 그릴 때 ‘원둘레’ 중 어딘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원이 완성되지 않듯이, 보편적인 인권 존중도 차이와 사회적인 구별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있는 한 슬로건인 채로 끝나 완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구조화로 ‘소홀히 여겨 잃어버린 인권과 존엄이라는 원둘레’를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부각시켜 함께 존엄의 소중함을 서로 공유하면서 삶을 직시하고 사회 본연의 모습을 바꾸는 연대를 후원하는 힘이 바로 인권교육입니다.

SGI가 펼친 인권교육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라는 원을, 같은 세계에 사는 인간으로서 함께 그려가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염증과 관련된 차별과 유연비어의 만연을 방지하고자 거듭 노력하면서 코로나19의 위기에 따른 불안과 공포의 암운을 날려버리고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인권문화로서 결실을 맺게 하는 도전을 지금이야말로 힘껏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팬데믹 위협에 맞서는 유엔 중심 협력체제 강화

지구규모의 안전망을 책임진다

이어서 ‘평화와 인도주의의 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엔을 기반으로 ‘민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지구사회 운영)’ 강화와 감염증 대책에 관한 국제 지침을 제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WFP는 오랫동안 기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면서 분쟁지역에 평화를 싣기 위한 상황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의료용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흔미한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는 신념으로 식량지원을 늘리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게다가 WFP는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항공 운항이 잇따라 중지되는 상황에서 선박이나 화물용 항공기를 마련해 의료 물품을 포함한 중요물자를 운송하고, 보건의료와 인도적 지원을 할 스태프를 태울 비행기를 확보했습니다.

WFP에 이어 유엔 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도 코로나19 대응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을 여러 감염증에서 보호하는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각국의 물류 업계와 맺은 관계를 동원해 마스크를 비롯해 방호복, 산소 농축기, 진단키트 등을 많은 나라에 보냈습니다.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각국에 주사기를 미리 전달하는 시스템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확보한 백신을 곧바로 각국에 보낼 계획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백신을 적절한 온도로 운송하는 방법,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태양열 냉장고 등을 정비한 경험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WFP나 유니세프 활동의 의의를 생각할 때마다 코로나19 위기가 일어나기 전부터 유엔에 있는 많은 기구의 활동이 차례로 쌓아올린 ‘글로벌 안전망’의 소중함을 다시금 깊이 느낍니다.

유엔에는 이외에도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UNHCR처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구의 활동을 통해 자칫하면 대응이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 사람들에게 늘 초점을 맞춰 국제적인 지원의 길을 열어온 의의는 매우 큽니다.

저는 2019년 ‘SGI의 날’에 발표한 기념제언에서 심각한 위협이나 과제에 맞닥뜨린 사람들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인간중심 다국간주의’의 중요성을 호소했는데, 21세기에도 그 접근방법을 전 세계의 기축으로 삼는 일이 더욱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지난해 창설 75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사업(UN75)’ 활동을 추진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대화와 의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도 활용하여 1000번이 넘게 대화한 것 외에도, 의식 조사에는 유엔 가맹국에서 100만명 이상 참여했는데, 국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사는 나라와 연령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이 현대 사회의 과제에 대처하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코로나19가 국제적 연대의 긴급함을 더욱 높였다고 인식했습니다.

의식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는 각지에서 보낸 목소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일자리를 비롯해 인간관계, 교육, 평화를 앗아갔습니다.”

“교육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학생들은 취업을 못 할지도 모릅니다.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가족을 부양하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예전 생활로 되돌아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를 비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절망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엄한 현상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나타나듯이 국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는 단순히 이상적인 국제사회를 상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위협과 과제에 맞닥뜨린 절실한 심정에서 토로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데케야르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고수한 신념

전 세계 사람들이 유엔에 기대하는 바를 조사한 결과를 두고, 지난해 3월 100세에 서거한 하비에르 페레스 데케야르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남미 페루 출신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46년에 처음 개최한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후 오랫동안 외교관으로서 유엔 활동에 참여해 오다 1982년부터 두번의 임기에 걸쳐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전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2년 8월에 그분과 도쿄에서 회담한 뒤로 여러번 만났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품은 신념인 ‘시민사회가 유엔을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호소할 때마다, 근엄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알려진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사명에 대한 깊은 생각을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퇴임 직전에도 엘살바도르 내전 종식을 위한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에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이뤄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유엔 역사에 길이 빛날 공적이 되었습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최대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요체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헌장과 국제기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약속합니다.”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확산을 비롯해 정치분쟁, 인권침해, 빈곤층 증가, 환경 위협 같은 큰 위험에다 이제는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려면 전 세계의 정치적 영지(英智)와 상상력 그리고 연대감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이는 유엔이라는 틀 안에서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연설에서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계속 행동해온 마음을 담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유엔이 맞닥뜨린 '곤란한 상황'이 바로 유엔에 '재생과 개혁을 위한 창조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에 맞닥뜨린 지금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호소한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꿔 유엔이라는 틀을 통해 '인간중심 다국간주의'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증유의 위기를 마주한 지금,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필요하다고 호소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은 앞으로도 더욱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염증 대책에 관한 국제지침을 채택

코로나19를 둘러싼 고위급회의

여기서 저는, 유엔이 '코로나19 위기를 둘러싼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연대를 더한층 강화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감염증에 대비해 '팬데믹에 관한 국제지침'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코로나19에 관한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불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듯 '공포에 떨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날'이나 '동료와 악수하고, 가족과 끌어안고, 친구들과 큰소리로 웃을 수 있는

날'을 맞이하려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묵념하고, 각국 대표들이 영상으로 연설하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온라인회의 등을 열었습니다. 특별총회에 이어 유엔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대책에 협조하는 데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 감염증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유엔이 에이즈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특별총회를 열었을 때, 달성 기간을 정한 우선 과제 목록과 국제협력 지침을 제시한 '에이즈와 HIV에 관한 선언'⁴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에이즈 대책이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또 분야는 다르지만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 4년 뒤인 2015년, 재해지역 센다이에서 개최한 제3회 유엔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에서 재해의 위험성 감소에 관한 원칙과 우선해야 할 행동을 정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재 목적으로 인명을 지키는 내용은 물론 '일상생활의 보호'를 명확히 내건 내용을 비롯해 방재와 감재(減災)를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동일본대지진을 비롯해 각지에서 발생한 재해를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에서 이재민과 희생자를 크게 줄이고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포함한 중요 인프라의 훼손을 막는 등 2030년을 목표로 내건 결과, 각국이 방재의 중점 항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팬데믹 문제도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와 같은 역할을 할 국제지침을 코로나19 위기의 교훈과 경험을 전제로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SDGs에는 에이즈와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의 삼대 감염증 등에 관한 목표는 포함했지만 팬데믹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감염증의 위협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지침을 정하고, 2030년을 향한 팬데믹 대책의 중점 항목을 정해 SDGs를 보강하고 각 목표와 연동하기 위한 지표로 삼으면 어떨까 합니다.

⁴ 에이즈와 HIV에 관한 선언

2001년 6월, 189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에이즈의 유행이 세계적인 비상사태이자, '인간의 생명 및 존엄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자금조달 등에 관한 10가지 항목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청년들이 주역인 청년이사회를

이처럼 국제지침을 채택하기 위한 유엔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에 구축해야 할 세계의 모습’을 논의하는 ‘비욘드 코로나19(Beyond Covid19)를 향한 청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2019년, 세계 청년이 유엔 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유엔 대표가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기후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참석 형태를 넓혀 분쟁과 빈곤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이나 어쩔 수 없이 난민생활을 하는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의견을 모아 유엔과 각국 대표에게 전하는 자리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UN75’ 보고서에는 많은 사람이 유엔의 변혁을 바라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유엔의 의사결정에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넓히기 바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만든 구체적인 제안을 열거했는데 저는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제안한 내용 등을 유엔 대표에게 전하는 역할을 할 ‘유엔청년이사회’ 설립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2006년에 발표한 기념제언에서 유엔에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⁵가 될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기를 더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2009년에 발표한 제언에서는 유엔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심력을 높이는 조직으로 ‘글로벌 비전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응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구축하고자 청년들의 의견과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기를 바란 제안이었습니다.

‘유엔청년이사회’는 이러한 청년들의 참여를 상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후정상회의에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주제로 한 청년정상회의를 개최해 ‘유엔청년이사회’를 설립하려는 분위기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이 바로 유엔을 기반으로 한 ‘민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새로운 숨결과 활력을

⁵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의 원리’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아르키메데스가 그 원리를 “내게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며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화가 유명하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무언가를 크게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불어넣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중의 생존권과 장래 세대를 지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핵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방안

이어서 둘째, 핵무기 금지와 폐기에 관한 제안입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그토록 바란 핵무기금지조약이 지난 1월 22일, 드디어 발효되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실험은 물론 제조와 보유부터 사용과 위협에 이르기까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금지하는 조약으로서, 현재 서명국은 86개국, 비준국은 52개국에 이릅니다.

이미 대량파괴무기 분야에서 금지조약이 성립된 생화학무기에 이어 핵무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될 무기’라는 점을 조약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시대가 지금 막 열렸습니다.

ICAN과 함께 조약발효 후원활동을 해온 피폭자 세쓰코 설로 씨가 지난해 10월에 발효가 확정된 단계에서 한 말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계속 행동해온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조약발효는 분명 핵무기 종식의 시작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 조약을 50개국이 비준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성취감과 만족감 그리고 감사로 가득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남태평양 섬들, 카자흐스탄, 호주, 알제리에서 핵실험으로 피폭된 사람들, 그리고 캐나다, 미국, DR공고의 우라늄광산에서 피폭된 사람들도 똑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세쓰코 설로 씨도 말했듯이 핵시대가 75년 이상 이어져 핵개발과 핵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달합니다. 조약에서 강조한 대로 핵무기는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하물며 다시 한번 핵무기를 사용하고 핵공격으로 응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전 세계에 미칠 참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량파괴라는 차원을 넘어 매우 소중한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도, 지역과 사회의 영위도, 인류가 구축한 문명과 역사도 모두 한순간에 ‘무(無)’로 되돌리고, 모든 존재의 의미를 가차없이 빼앗는, 마땅히 ‘절대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 스승 도다 제2대 회장은 핵개발 경쟁으로 사정거리가 전 세계에 이른 시대에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하면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그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도다 회장이 ‘핵무기 사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서 끝내지 않고 굳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던 까닭은, 핵시대에 숨어 있는 ‘절대악’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사국회의에 참석해 피폭국으로서 논의에 공헌을

핵무기금지조약의 기반도 조약 전문에 명기되어 있듯이 ‘모든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핵무기 전면 금지를 국제규범으로 확립함으로써 비보유국뿐만 아니라 핵의존국과 핵보유국을 포함해 ‘같은 지구에 사는 모든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생존기반’을 지키는 데 조약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이 달성된 뒤에도 지난해 유엔총회 제1회 위원회에서 16개국이 비준하겠다는 의향을 잇따라 표명하는 등 조약을 지지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조약이 발효되고 1년 이내에 개최하는 첫 당사국회의까지 ‘모든 인류의 안전’을 바라는 목소리를 폭넓게 모으고, 서명국과 비준국이 크게 늘어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사국이 아닌 나라를 비롯해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당사국회의를 열어 조금이라도 많은 핵의존국과 핵보유국이 논의에 참여해 핵시대를 끝내기 위한 연대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앞서 언급한 ‘UN75’ 보고서에도 이러한 연대 구축을 바라는 세계시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10가지 항목에 걸친 행동제안에서 로봇무기 등 자율살상무기시스템(LAWS) 금지와 더불어 핵무기금지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한 세계적 규모의 압박을 포함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전 세계 16개국·지역의 젊은 세대(20~35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도 청년 84퍼센트가 ‘전쟁과 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의견은 핵보유국에서 사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유일한 핵전쟁 피폭국인 일본은 다른 핵의존국에 앞장서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하겠다는 표명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비준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지구에 사는 모든 민중의 생존권’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생존기반’을 지키는 조약정신에 비추어 피폭국이기에 때문에 발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로 당사국회의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끄는 데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과 SDGs’를 둘러싼 논의로 안전보장의 기축을 전환

거액의 군사비를 계속 투자하는 데 따른 시시비비

핵무기금지조약에는 당사국회의에서 조약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핵무기 폐기 조치를 검토해 ‘조약 규정을 바탕으로 그 외의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당사국회의에서 의제 중 하나로 ‘핵무기와 SDGs’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핵무기 문제는 세계평화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조약 전문에 언급했듯이 인권과 인도주의, 환경과 개발, 경제와 식량, 건강과 양성평등 등 많은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것이든 SDGs의 초석이 되는 분야이므로 ‘핵무기와 SDGs’라는 주제를 모든 나라와 관련된 공통 토대로 여겨 핵의존국과 핵보유국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폭넓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대립이 이어진 극도의 긴장감은 핵무기 위협이 전 세계를 뒤덮어버리는 상황을 고착시켜, 냉전이 종결되고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움직이기 어려운 정해진 조건’인 것처럼 보는 분위기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핵무기에 계속 의존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시시비비에 관해 SDGs 각 목표의 무게에 초점을 맞춰 다시 살펴보는 일이 핵의존국과 핵보유국에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심각한 의료위기와 경제적 타격이 각 나라를 덮쳐 이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핵무기로 인한 안전보장’을 위해 거액의 군사비를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대 그리스신화에는 만지면 모두 ‘황금’으로 바뀌는 능력을 손에 넣은 마이더스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황금’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과 음식까지도 ‘황금’으로 바뀌어버리자 마이더스왕은 그 능력을 버리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듯 기후변화에 코로나19 위기까지 직면한 지금, ‘핵무기와 SDGs’를 둘러싼 논의를 통해 핵무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각시키는 일이 어느 나라든 바람직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세계적으로 넓히려면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발표한 제언에서 당사국회의에 전 세계 피폭자를 비롯한 조약을 지지하는 각국 지자체 그리고 NGO 대표들이 시민사회의 참관인으로 참석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선택하는 민중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사국회의에서 논의와 더불어 이 민중포럼을 개최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강력히 발신함으로써 핵무기 금지조약을 ‘21세기 군축의 기둥’으로 두면서 ‘인류사를 전환하기 위한 대중적 에너지의 중심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트블랫 박사의 인생 궤적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계기로 모든 나라가 지구상에서 핵무기 위협을 없애기 위한 연대를 맺을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크나큰 분기점에 선 지금,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오랫동안 퍼그워시회의 회장을 맡은 조지프 로트블랫 박사의 인생 궤적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 개발을 추진한 ‘맨해튼계획’에 수많은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도중에 계획에서 빠지겠다고 결단을 내린 유일한 과학자입니다.

그 수년 전, 연구를 위해 홀로 영국에 건너간 박사는, 아내가 있는 모국 폴란드를 독일 나치스가 침공해 아내와 생이별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영국이 ‘맨해튼계획’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하자, 박사는 ‘나치스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양심과 갈등하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로스앨러모스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훗날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 박사 옆방에서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군 책임자에게서 ‘맨해튼계획’의 본디 목적은 원자폭탄을 하루빨리 완성해 나치스의 전의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소련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 로트블랫 박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사는 그때 심경을 저와 나눈 대담에서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이유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극비로 다뤄진 ‘맨해튼계획’에서 빠지겠다고 요청한 박사는 압박과 방해를 받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홀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사의 아내는 나치스가 저지른 홀로코스트에 희생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사는 ‘남은 인생을 핵폭탄을 두 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바치자’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과학자들이 연대하여 핵무기 사용 반대 운동을 추진하는 ‘영국원자력과화학자협회’를 설립하고, 핵무기 위협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열차 차량을 전시 장소로 사용해 유럽과 중동 각지를 이동하며 전시했습니다.

또 박사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신념에서 연구 전문분야를 방사선의료로 바꿨습니다. 로트블랫 박사가 발견한 방사성 원소 ‘코발트60’은 지금도 악성종양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 1954년에 비키니환초에서 실시한 수소폭탄실험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과 인근을 향해하던 일본의 제5후쿠류마루호 선원이 피폭된 사건을 계기로 박사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경과 만났습니다. 이후 ‘러셀-아인슈타인 선언’⁶을 발표하고 퍼그워시회의 설립에 참여하여 2005년 서거할 때까지 퍼그워시회의의 중심인물로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위해 반평생을 보냈습니다.

서로 위협을 없애려는 노력

1995년, 로트블랫 박사가 퍼그워시회의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 핵억제론의 내실에 관해 말한 내용은 지금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그저 냉전시대의 타성이 이어져 오고 있을 뿐입니다.”

“핵무기가 전쟁을 방지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야 이 논의를 반박할 수 있을까요.”

로트블랫 박사는 저와 나눈 대담에서도 ‘나치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으나 그 뒤 이유와 전략론이 잇따라 바뀌면서 핵무기 보유를 늘 정당화하고 핵개발 경쟁으로 이어진 문제를 초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요컨대 핵무기는 어떤 필요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의

⁶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1955년 7월, 철학자 러셀과 물리학자 아이슈타인 등 11명이 핵무기 개발로 인류는 멸망할 위기에 직면해, 그 위협을 멈추려면 전쟁을 없애야 한다고 경종을 울린 선언이다. 그 뒤, 세계 과학자들이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퍼그워시회의를 설립해 1957년 7월, 캐나다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했다.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이유를 필요로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로트블랫 박사가 지적했듯 ‘불특정 위험’을 이유로 삼는 한, 핵무기는 계속 보유되어 그 위험은 언제까지나 지구상에 남게 됩니다.

그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의 목적은 각국이 함께 ‘핵무기의 존재가 초래하는 위험’을 서로 노력하여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갈 궤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로트블랫 박사가 설립에 참여한 퍼그워시회의가 핵무기 폐기를 향한 첫 돌파구로 힘을 쏟은 목표는 바로 핵실험 금지였습니다.

그 노력은 쿠바 위기가 발생한 이듬해(1963년), 지하 이외의 대기권 등에서 이루어지는 핵실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발효로 이어지고, 시간이 흐른 뒤 핵폭발을 동반한 모든 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1996년)을 채택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184개국이 서명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를 통해 핵실험의 조짐을 지구적인 규모로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로트블랫 박사가 경종을 울린 ‘불특정 위험’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CTBTO 준비위원회는 그 감시망을 활용해 재해의 조기경보와 원전사고 관측 등에도 공헌하고,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는 형태로 전 세계 사람들을 지키는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분야에 깊이 관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3월 이후, 핵연구에서 파생된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로 1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감염검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IAEA는 암치료 보급 외에도 에볼라바이러스와 지카바이러스 등의 감염증 검사를 지원한 이력이 있는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활동에 거는 심정을 “IAEA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위기에 직면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행동한 로트블랫 박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절실히 필요한 억제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핵무기에 의한 억제력’이 아닌 기후변화를 비롯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생한 피해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와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연대의 힘’이 아닐까요.

NPT 재검토회의를 계기로 교섭을 추진하여 다국간 핵군축을 실시

2025년까지 핵무기 불사용을 서약

생화학무기도 각각 금지조약 발효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폐기를 결단하는 보유국도 잇따라 나타나 이미 전 세계 90퍼센트 이상의 화학무기를 폐기했습니다.

핵무기 분야에서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핵보유국과 핵의존국 사이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핵의존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참여해 제3차 총회에는 158개국 대표가 참석하고 미국과 영국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 일련의 회의가 이끌어낸 결론 중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 ①핵폭발의 영향은 국경을 불문하고 그 심각한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구적 규모로 나타난다.
- ②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핵폭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 ③핵폭발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사회취약계층에 가장 심각한 해를 입힌다.

이러한 ‘국경을 불문한다’ ‘어떤 나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심각한 해를 입는다’는 구도는 위협의 분야는 다를지라도 기후변화 문제와 코로나19 위기와도 통하는 바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각국이 입은 타격의 크기에 견주어 생각해보면 인류 전체에 지극히 막대한 참상을 초래할 핵무기 위협의 뿌리를 끊어내는 일의 중요성은 핵의존국과 핵보유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자기 일처럼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실은 냉전시대부터 계속된 이 중대한 위협을 없애는 일은 ‘모든 인류에게 참상을 가져올 핵전쟁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정신에 따라, 1970년에 발효된 NPT와 지난 1월에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두 조약을 양대 축으로 삼아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지구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8월에 개최할 예정인 NPT 재검토회의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검토회의에서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위기가 확산되는 데 따른 안전보장의 의미를 논한 다음, 최종 문서에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막대한 해를 입은 상황을 감안하여 2025년에 개최할 차기 재검토회의까지 핵무기 불사용과 핵개발 동결을 서약한다’는 구절을 넣자고 제안합니다.

본디 재검토회의는 지난해에 개최해야 했지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영향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1년 남짓 사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낀 ‘안전’과 ‘안심’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불특정 위협’을 이유로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하는 정책이 NPT 정신에 맞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핵개발경쟁이 점점 심각해지던 냉전시대에 미국이 1958년 달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확실히 보이도록 달에 강렬한 섬광을 발생시켜 소련에 힘을 과시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계획은 단기간에 중단되어 달을 지켜냈지만, 당시 지구에서는 미소 간에 ‘소아마비 감염 확산을 막는 백신의 실용화를 위해 양보하고 협력’한 반면 ‘달까지 이용한 핵무기의 위협’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반대로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입은 타격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수년이 걸린다고 예측하는 가운데, 핵무기 근대화를 지속할지 여부에 관해 이 역사적 교훈에 초점을 맞춰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8월에 개최 예정인 NPT 재검토회의에서 ‘핵무기 불사용과 핵개발 동결’을 서약한 다음 NPT 제6조의 핵군축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다국간 교섭을 조속히 시작해 2025년에 개최하는 차기 재검토회의까지 핵군축을 추진하기를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핵보유국이 조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NPT 체제를 통해 ‘핵무기 불사용과 핵개발 동결’을 서약의 기초로 ‘다국간 핵군축 교섭’에 합의하여 더 많은 핵의존국과 핵보유국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조약을 연동하여 핵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궤도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보호 확충을 비롯해 경제와 생활의 회복이 급선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셋째,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와 생활의 회복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외환위기를 비롯해 오일쇼크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그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타격을 불러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익이 급격히 악화되어 전에 없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강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 근로자의 약 절반에 이르는 16억명의 생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경종을 울릴 만큼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긴급대책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특별화상회의에서도 ‘모든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확실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점점 더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보호는 한사람 한사람이 평생 동안 빈곤, 질병, 실업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영향을 줄여 주는 정책이나 대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다룬 인권 중 하나입니다.

일찍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용, 보건, 교육 등에서 타격을 입었을 때 유엔은 2009년에 생활기반 보장을 확보하는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이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저는 2013년에 발표한 기념제언에서 이 대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점을 들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없고, 인권문화를 양성하는 기풍을 뿌리내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확보하는 일이 바로 지속가능성과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커다란 전제임을 의식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엔이 검토한 SDGs 중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되돌리기 위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모든 나라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SDGs에서도 내걸었는데, 세계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지금까지 안정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갑자기 곤궁해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을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해저드의 관점에 선 정책

37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점을 공통인식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생계지원’이라는 제목의 OECD 정책보고서에는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고, 현재와 미래의 건강이나 생활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인식을 제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규모로 불어닥친 위기인 만큼 단기 대응뿐 아니라 앞으로 몇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몇년에 걸친 지속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혼미한 유럽 여러 나라의 부흥을 지원하고자 미국이 1948년에 시작한 ‘마셜플랜’을 정비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OECD의 모체입니다.

현재는 각국의 수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로 발전하여 각국 정책을 상호 심사하는 활동을 통해 정책의 ‘세계표준’을 조성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활동을 통해 정리한 정책제언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데에 초점을 맞춰, 실행을 의미하는 영어인 ‘Do’를 추가해 OECD는 ‘싱크 앤 두 탱크(Think and Do Tank, 구상하고 실행하는 두뇌 집단)’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OECD 가맹국이 사회적 보호에 관한 SDGs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입은 경제와 생활을 회복할 정책을 ‘세계표준’으로 이끌고, 솔선수범하여 실행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경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군사비를 삭감하여 사회보호제도의 확충을 위해 쓰는 일’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해방재와 생태계 보호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의료제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요양시설 등 간병분야의 고용환경경비’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계를 이끄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

여기서 정책의 예시로 사회적 보호의 확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그리고 방재와 보건복지 분야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현대에 발생하는 위기는 유엔 방재기구가 강조하듯 여러 위협이나 과제를 포괄하여 대처하는 ‘멀티 해저드(Multi Hazard, 복합 위험)’의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의 악화와 자연환경의 파괴가 진행되면 신종 코로나19에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연쇄작용을 ‘멀티 해저드’의 관점에서 대책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새로운 감염증을 방지하는 대처가 되고, 감염증 대처를 강화한 사회는 견고한 방재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됩니다.

또 생태계 보전을 기반으로 한 방재와 감재에 힘쓰는 일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힘이 된다고 말했듯이 많은 과제를 ‘긍정적인 연쇄작용’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도전으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장대한 녹지 구축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와 생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데 중요한 점은 사회적 보호의 확충을 주축으로 삼으면서 여러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각국이 함께 구축하는 일이지 않을까요.

각각의 위기에 개별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처하면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생물다양성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부흥계획과 더 폭넓은 개발계획에는 자연환경을 토대로 한 해결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계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지금 시급한 고용과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30년까지 자연 전반에 걸친 사업 기회가 1억 91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거대한 녹색만리장성(Great Green Wall)만 해도 33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녹색만리장성’은 사하라사막의 사헬지역을 횡단하는 형태로 길이 8000킬로미터 폭 15킬로미터에 걸쳐 재래식물을 심고, 주변에 농지를 조성하여 장대한 녹지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연합이 주도하여 2007년부터 지금까지 2000만 헥타르에 달하는 황폐한 토지를 복구했습니다. 이에 나무를 심고 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고용이 늘고 사막화에 따른 식량부족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은 더욱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계획은 SDGs를 구성하는 17개 분야 중에서 15개 분야에 달하는 목표에 공헌하고, 사헬지역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2030년까지 1억 헥타르에 달하는 ‘녹색만리장성’ 구축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경제회복을 비롯해 SDGs의 달성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파리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헬지역처럼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도 자연을 회복하는 행동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사례이지만 OECD 가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WEF의 예측에 따르면 자연환경 중심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식량과 토지활용 분야에서 1억 91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자원효율이 높은 인프라 정비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체 약 4억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OECD 가맹국이 주요 파트너로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등 여러 나라와 연계하여 세

계경제를 회복하는 견인력이 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지구 전체에 넓히는 역할을 맡기를 저는 강하게 기대합니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행동 10년을 추진

유엔이 SDGs 달성을 향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동 10년’은 코로나19 위기의 발생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연대하여 황폐한 땅을 농지로 바꾸고자 계속 노력해 지구상에 ‘거대한 녹지대’를 새롭게 만들어내듯, 인간에게는 맞닥뜨린 위기를 ‘가치창조’의 자양분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창가학회가 이름에 내건 ‘창가(創價)’라는 글자에도 그러한 가치창조의 힘을 발휘하면서 ‘자타 함께 행복’을 중심 축으로 삼은 사회를 구축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은 가치창조의 역동성을 불법의 진수인 법화경의 비유를 바탕으로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연꽃이 주변 진흙에 물들지 않고 진흙을 자양분으로 삼아 아름답게 피듯 시대가 아무리 혼미해져도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신념을 매몰시킬 수 없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사명의 무대’로 바꿔 인간의 생명에 내재한 무한한 ‘가치창조’의 힘을 꽃피우면서 사회에 희망과 안심을 넓히는 존재가 된다.”

‘창가’라는 말은 사제 간의 대화에서 생겨났습니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과 도다 제2대 회장이 원류가 되어 1930년부터 시작한 ‘자타 함께 행복’을 목표로 하는 민중운동은 바야흐로 192개국·지역으로 넓혀졌습니다.

유엔이 SDGs의 달성 기간으로 내건 ‘행동 10년’의 목표점인 2030년은 우리 창가학회 창립 100주년에 해당합니다.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뜻이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와 깊이 맺은 연계를 발판으로 삼아 2030년을 향해 시민사회로서 SDGs의 달성을 후원하고 ‘평화와 인도주의의 지구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도전을 더욱더 힘차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1. 주일독일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
2. ‘불교설화대계’ 제11권 나카무라 하지메, 마스타니 후미오 감수, 스프키출판
3.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화광신문사
4. ‘도다 조세이 전집’ 제3권, 세이쿄신문사
5.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
6. ‘시련에 처한 문명’ 아널드 토인비 저, 후카세 모토히로 옮김, 사회사상사
7. ‘전염병 연대기’ 대니얼 디포 저, 박영의 옮김, 신원문화사
8.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마사 누스바움 저, 조계원 옮김, 민음사
9. ‘붓다-신들과 나누는 대화’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10. 유엔 홍보센터 홈페이지
11. IDNInDepthNews 2020년 11월 3일자
12.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세이쿄신문사
13. ‘지구평화를 향한 탐구’ 이케다 다이사쿠, 조지프 로트블랫 저, 중앙북스
14. 일본퍼그워시회의 홈페이지
15. 경제협력개발기구 홈페이지